

## [온누리 가정축제(OFC)]

### 저녁집회 둘째 날 : 아버지의 마음

[본문] 시편 3편 /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2

오늘 저는 성경에서 아버지로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위대한 군인이었고, 왕이었고, 시인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진 고민은 경제적인 것도, 부부싸움도, 정체성의 고민도 아니었습니다. 직장의 고민도 아니었습니다.

#### 다윗의 고민

다윗이 가진 기막힌 고민은 자식 때문에 생긴 고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은 자식의 배신입니다. 아내가 배신하면 이혼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배신하면 달리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혼할 수도, 호적을 팔수도 없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쿠데타를 당합니다. 왕권을 빼앗기고 왕의 지위에서 쫓겨나 끝없이 유리방향합니다. 무섭고 잔인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산으로 굴로 다닙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고 수모를 주기 위해 아버지의 후처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이런 기막힌 고뇌를 할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크고 직장, 질병의 문제도 큼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생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셀라)**

무수한 비난과 조소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렇게 기도하고 믿어도 하나님이 널 돕지 않아'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막힌 고뇌 속에 쫓겨 다니면서 블레셋까지 가야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 다윗이 한 믿음의 고백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고 나를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지키셨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 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라고 말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머리가 처박힌 상황이지만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탈출구요, 해답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정체성의 어

려움을 겪을 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다윗이 오늘 저녁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밤을 지새야 할지 모른 채, 그것도 자식에게 쫓겨 다니는 아버지의 신세였지만 ‘여호와를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십시오.

####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도다(셀라)**

이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고백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합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고백을 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성산에서 주의 응답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디선가 불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에 생기가 돌고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린다는 생각만 해도 해답은 주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구름 한 장 보이지 않았지만 일곱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비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 문제, 자존감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